# 토기를 통해 본 대가야

박 천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가야토기의 기원과 제작 기술
Ⅲ. 가야토기의 양식
Ⅳ. 토기로 본 가야 세력의 변천과 대가야의 발전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가야토기를 통하여 시기별 가야 세력의 판도의 변화와 대가야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3~4세기 뚜렷한 토기의 양식적 특징과 분포권을 형성한 정치체가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인 것은 양자가 가야 전기의 중심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특히 아라가야 양식 토기의 광역 분포권으로 유추되는 관계망은 아라가야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전기에 양대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았다.

5세기 초 금관가야 양식 토기가 소멸되고 아라가야 양식의 분포권이 축소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관가야의 쇠락과 아라가야의 일시적인 쇠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는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를 교체하듯 동남해안과 황강유역, 남강 중·상류역까지 분포권이 확대된다. 이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서 소가야가 일시적으로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세기 후반 대가야 양식 토기가 황강 수계, 남강 중·상류역, 금강상류역, 섬진강 수계, 동남해안, 일본열도에 분포하게 된다. 이는 아라가야와 소가야가 활동하였던 관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계망을 고령세력이 대신 장악함으로써, 4세기까지 내륙의 소국에 불과했던 대가야가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6세기 후반 가야지역에 신라양식 토기가 일거에 출현하는 것은 562년 대가야의 멸망 이후 신라에 의한 가야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주제어

토기 양식,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

# Ⅰ. 머리말

가야토기는 삼국시대의 신라토기와 함께 원삼국시대의 와질토기에서 발전한 것으로 도차로 성형하여 1200도 이상의 고온을 내는 등요에서 還元焰으로 구워 흙 속에 포함된 규산이 유리질화 되어 침수성이 없어진 회청색경질토기이다.

회청색경질토기의 출현기에는 이전 시기 영남지방의 원삼국시대 후기 와질토기의 기형과 비슷한 원저단경호, 고배, 노형기대 등이 제작되나, 양자는 제작기법이 다르고 특히 소성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회청색경질토기는 와질토기와 달리 등요에서 환원염으로 구워 흙 속에 포함된 규산이 유리질화되고 자연유가 형성되어 침수성이 없는 점이 와질토기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본다. 즉 와질토기는 회청색경질토기와 같이 밀폐요에서 환원염 소성으로 제작되나 전자가 900~1000도 정도에서 소성되는 반면 후자는 등요를 사용하여 1200도 이상으로 소성된다. 회청색경질토기는 와질토기의 기형 일부를 계승하고 있으나 침수성을 없앤 것은 중국 제도 기술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와질토기는 회전판을 이용하여 성형하고 조정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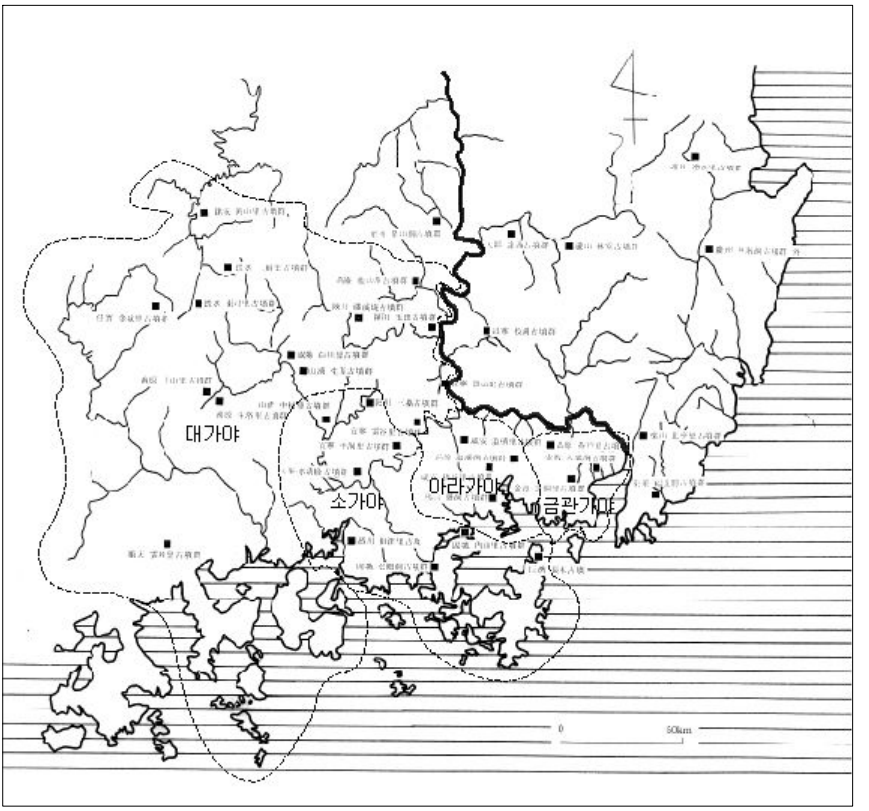
물손질, 타날, 목판조정, 마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회청색경질토기는 도차가 도입되면서 고속회전을 이용한 기술이 보편화되어 새로운 기형을 창출하고 그 공정이 단축되었으며 분업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가야토기는 원삼국시대의 와질토기와는 달리 전업적 생산체계에서 제작된 것이다.

가야토기는 공간적으로는 가야산 이남의 낙동강 이서지역에서 호남동부지역까지 주로 출토되며, 시간적으로는 회청색경질토기 출현시기인 3세기 중엽 이후 562년 대가야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제작된 토기를 가리킨다. 가야토기는 회청색경질토기와 적색연질토기로 대표되며, 적색연질토기는 전시기의 무문토기의 제작 기술을 계승한 것으로 주로 생활유적에서 煮沸용기로 발견되고 있으며, 회청색경질토기는 분묘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생활용기와 더불어 주로 부장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다.

가야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다른 삼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멸망할 때까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으나, 신라와 함께 삼국가운데 가장 일찍 경질토기를 생산하였으며 여러 국마다 형태가 다른 아주 다양한 토기를 제작하였다. 더욱이 가야토기는 신석기시대 이래 한반도의 토기 가운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나며 그 유려한 곡선은 한국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토기는 반드시 필요한 물자는 아니지만 사람, 물자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물자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철 등의 유통권이나 그 루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토기양식은 공통의 기술적·형태적 특징을 가진 형식의 조합이 일정한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토기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4세기에는 금관가야양식과 아라가야양식은 노형기대, 타날문호, 고배가 분명한 형태적 차이를 가지고 약 1세기 동안 지속되며 공간적 분포를 달리한다. 또한 5~6세기에도 아라가야양식, 소가야양식, 대가야양식 토기는 기대, 호, 고배 등이 분명한 형태적 차이를 보이고 1세기 이상 공간적 분포를 달리한다.




〈그림 1〉 토기와 유적으로 본 가야의 지역구분

특히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는 영남지방을 관통하는 낙동강이라는 자연지리적 경계와 일치하여 주로 5세기 이후 그 양식적 차이가 뚜렷해진다. 낙동강 이서지역은 가야양식 토기가 분포하고, 그 이동지역은 신라양식 토기가 분포한다. 이와 같이 가야와 신라의 토기는 영남지방을 가야권과 신라권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되며, 또한 가야권에서도 여러 세력권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즉 가야양식 토기는 지역차에 따라 소지역 양식으로 세분화되어 크게 4세

기에는 김해 금관가야양식, 함안 아라가야양식, 5세기에는 아라가야양식, 고령 대가야양식, 고성 소가야양식으로 분류된다. 이 각 양식의 토기들은 한정된 하나의 분지를 넘어 여러 분지와 수계에 걸쳐 분포하는데, 이는 각각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라는 정치체의 권역에 대응한다.

삼국시대의 토기양식은 신라의 낙동강 이동지역으로의 진출, 백제의 금강 이남지역으로의 진출, 대가야의 경남서부와 호남 동부지역으로의 진출에 따른 토기양식의 확산, 대가야 멸망 후 신라양식으로의 교체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치적·경제적 관계와 그 변화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야토기는 문헌사료로는 살피기 어려운 가야 세력의 시기별 판도와 변화 등과 같은 정치적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어 가야 고고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토기를 비롯한 위신재, 묘제와 같은 고고자료의 분포로 볼 때, 고령을 중심으로 황강수계, 남강상류역, 섬진강수계와 남해안에 걸친 가야사상의 최대 판도를 형성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가야토기의 기원과 제작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지역별 토기양식을 설정하고 대가야양식 토기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토기양식의 시기별 분포 변화를 살피는 가운데 대가야권의 형성과정과 그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Ⅱ. 가야토기의 기원과 제작 기술

### 1. 가야토기의 기원

최초의 회청색경질토기는 김해시 양동리235호분 출토 양이부호를 들 수 있다. 회청색경질토기의 출현시기는 하한연대가 2세기 후엽이라는 그 조영

연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양동리162호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다음 단계인 양동리235호분 출토품은 3세기 전엽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성동29호분 출토품으로 볼 때 늦어도 3세기 중엽으로 본다.

회청색경질토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古越磁설, 東漢代灰釉陶설, 자생설 등이 있다.

고월자설은 신경철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 근거는 출현기의 회청색경질토기에 보이는 양이부호가 중국 북방에서 서진 무렵에 남방의 고월자에 의해 성립된 것이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晋書』 東夷傳 馬韓辰韓조 西晋 교섭기사와 『通典』 동이전 夫餘조, 『진서』 동이전 부여조의 태강 6년(285년) 기사를 들고 있다. 이를 부여족일파가 남하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동반하여 회청색경질토기의 제작 기술이 이입되어 금관가야에서 출현하여 영남지방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1)]

그러나 대성동29호분 출토 양이부호가 그 이전 시기로 소급되고 고월자와 계통을 달리하는 양이부호가 이미 3세기 전엽인 양동리235호분에서 출현한 점에서 신경철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함안지역의 도항리(문)35호분과 경주지역의 황성동(동)22호분 출토 회청색경질토기가 대성동29호분 출토품에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부여족 남하에 의해 회청색경질토기가 김해지역에서 성립되어 영남지방으로 전파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동한대 회유도설은 최종규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회청색경질토기의 원형은 한대의 회유도에 있으며 한반도에 이입되는 시기를 위진대로 보았다. 그리고 이입로는 전통적인 북방로와 함께 남방로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기술의 이입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았다.[2)]

---

1) 申敬澈, 1992, 「金海 禮安里160號墳에 대하여」, 『伽耶考古學論叢』 1,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회유도설은 자연유와 기형 등으로 볼 때 그 기원은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다만 남방로설은 그 근거로 든 김해시 예안리77호분 출토 패부가 중국 남방지역과의 직접 교섭보다는 九州지역과의 교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용하기 어렵다.

자생설은 이성주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회청색경질토기 출현 이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이를 생산하지 못했으나 3세기 말에 갑자기 출현한다는 설에 대하여, 자체적이고 점진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그 혁신이란 있을 수 없으며 창원시 도계동(동)6호분 출토품과 같은 회청색경질토기가 이미 원삼국시대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예로 제시하였다.[3)]

필자는 재지적인 기술력 없이 갑자기 부여족 남하와 같은 민족이동에 의해 회청색경질토기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민족이동에 동반한 공인의 이동에 의한 것이라면 가야계 공인의 이주에 의해 제작된 일본열도의 초기 스에키처럼 회청색경질토기의 전 기종이 완성된 형태로 출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회청색경질토기인 양동리235호분 출토 양이부호가 이미 3세기 전엽에 출현하고 그 기면의 박리가 심한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창원시 도계동(동)6호분, 오사카후 카미유적 출토품과 같은 경질소성이나 자연유가 형성되지 않는 토기는 회청색경질토기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토기는 와질토기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가는 과도기의 산물이다.

그래서 회청색경질토기는 동한대의 회유도와 같은 중국 제도기술의 영향에 의해 영남지역 각지에서 와질토기 제작 기술의 개량에 의해 자체적으로

2) 崔鍾圭, 1994,「陶質土器의 起源」,『考古學誌』6, 서울, 韓國考古美術硏究所, 77쪽.
3) 이성주, 2000,「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한국고고학보』42, 한국고고학회.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 가야토기의 제작 기술

토기의 제작은 태토의 준비, 성형, 정면 및 장식, 건조, 소성의 단계를 거친다.

### 1) 태토

토기의 원료인 점토는 암석이 그 자리에서 풍화하여 형성된 1차 점토와 암석의 입자가 이동하여 퇴적된 2차 점토로 나누어지며 주로 후자가 사용된다.

점토는 토기제작을 위해 가공되어 태토로 준비된다. 점토의 가공에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필요한 물질을 첨가한다. 첨가물은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뉘며, 전자는 대체로 점토의 점성을 완화시키고 건조 및 소성시 갈라짐을 방지하며 내화도를 높인다. 반면 점성이 적은 점토의 경우 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유기질의 첨가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 2) 성형

성형기법의 흔적은 기면을 정면하면서 지우는데, 특히 가야토기는 도차의 고속회전을 이용하여 내외면을 조정하거나, 소성시 분출된 자연유의 기면부착이나 기포형성 등의 부차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형기법의 관찰이 용이하지 않다.

토기 성형의 방법은 도차의 사용 유무에 따라 크게 도차법과 비도차법으로 구분된다. 비도차법은 手捺法, 捲上法, 輪積法, 분할성형법, 형뜨기법, 打捺法 등이 있다.

수날법은 점토띠를 쌓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아주 작은 제사용 명기나 장고형의 窯道具와 같은 토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권상법은 주로 소형의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 신석기시대의 즐문토기에서부터 보이며 삼국시대 이후 도차가 출현한 시기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점토띠를 나선형으로 쌓아 올라가면서 기형을 성형하는 방법으로 점토띠를 쌓아올리면서 내외면에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기 때문에 벨트모양의 기벽을 이루게 된다. 이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기벽의 두께를 조절하기가 쉽고 제작과정에서 기벽의 두께가 더욱 고르게 유지되며, 점토대의 접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적법은 점토띠 또는 점토대를 말아 둥근 도너츠형을 제작한 후 겹겹이 쌓아 기형을 성형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주로 대형 기종의 토기 제작에 사용된다.

분할성형법은 한 번의 제작공정으로는 토기전체를 성형하기 곤란한 壺나 甕 등의 대형토기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윤적법에 해당되는데 토기에 남은 흔적을 근거로 하여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토기의 한 부분을 권상법이나 윤적법으로 성형하여 어느 정도 건조시킨 후 그 위에 일정한 높이까지 다시 쌓는 반복과정을 통해 성형하는 방법과, 토기를 부분별로 분리하여 권상법이나 윤적법으로 성형한 후 건조되었을 때 각각 붙여서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저부 내면에 조으기 흔이 있는 40cm 이상의 대옹은 동체의 상부까지 성형을 완료한 후 倒置하여 저부를 丸底화하고 저부의 끝은 밖에서 비틀어서 폐쇄하고 건조 후 다시 토기를 定置시켜 구경부를 성형하는 순서로 제작된다.[4]

형뜨기법은 틀에 점토를 눌러 붙여서 성형하는 방법으로 가야토기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된 것도 있으나 이를 조합한 경우가 많

4) 郭鍾喆, 1987, 「韓國慶尙道地域出土の陶質大形甕の成形をめぐって－底部丸底化工程を中心として－」,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上, 京都, 同朋舍出版.

다. 즉 수날법으로 바닥을 만들고 위를 권상법이나 윤적법으로 쌓아올린 예가 그러하다.

타날법은 기벽중의 공기를 빼서 소성시에 생길 수 있는 기포의 형성을 방지하며, 접합부를 단단하게 굳히고 기벽을 얇게 하면서 환저화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타날문은 토기의 제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나 문양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장식적인 효과를 내기도 한다.

타날을 위한 도구는 나무를 깎아 만든 타날판과 나무 또는 흙으로 만든 내박자로 이루어진다. 타날판은 기벽을 두드리는 도구로 성형시 기벽에 방망이가 접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드리는 면에 꼰실을 감거나 또는 문양을 새겼다. 그래서 토기의 기면에는 승문이나 격자문, 평행타날문 등이 생긴다. 나뭇결에 따라 평행하게 파내어 새긴 것은 평행타날문, 종횡으로 파서 격자를 새긴 것은 격자타날문이라 한다. 그런데 나뭇결에 직교하여 새긴 것도 사용을 반복함에 따라 결이 도드라져, 언뜻 보기에는 격자와 같이 보이게 되며 격자타날문과 구별하여 의격자타날문으로 부른다.

내박자는 타날판으로 두드릴 때 토기 내면을 받쳐주는 도구로서 둥근 자갈을 이용하거나 손잡이가 달린 점토 또는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박자를 사용하면 토기의 내면에는 그 모양대로 오목한 흔적이 남거나 또는 받침모루에 새겨진 동심원과 같은 문양이 그대로 새겨지기도 하는데 보통 반원 또는 동심원상으로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심원의 구를 새기지 않았으나 사용에 의해 나뭇결의 연륜이 도드라짐으로써 동심원문과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타날문은 동체하반부에서 교차가 이루어지는데, 같은 박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문양이 새겨진 박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외면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면의 박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

가야토기는 회전대를 발전시킨 도차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전대는 원판 저면의 중앙에 축상의 짧은 돌출부를 만들고, 지면에 고정시킨 축 수부

에 올린 것으로, 회전은 용이하나 대가 가볍고 축의 마찰면이 커서 惰性이 붙기 어려우며 회전이 느린 점이 특징이다. 반면 도차는 축의 첨단이 뾰족하여 축 수부의 마찰면이 적고 원판이 무거워서 타성이 붙고 빠른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회전대상의 토기 제작이 점토대를 쌓거나 정면과 문양의 시문에 느린 회전력을 이용하는 정도인데 반해, 도차는 회전대와는 달리 회전축이 발달하여 받침이 무게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토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야토기는 점토대를 쌓아올리고, 구연부 부근의 성형과 기면의 조정과 정면에 주로 도차의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토기의 바닥에는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회전대의 흔적이나 도차의 축흔이 관찰되는 예가 있다. 또 바닥에는 회전대나 도차에서 분리할 때의 대칼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3) 정면

정면은 토기를 성형한 후 면을 고르게 다듬는 마무리 작업으로 기벽을 성형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형된 토기가 어느 정도 건조된 뒤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연은 토기면을 치밀하게 하여 액체의 침투를 막고 미적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슬립은 토기면에 얇은 점토막을 입혀 침투성을 없애고 미적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깎기는 기벽의 필요 이상으로 두터운 부분이나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 또는 저부를 성형한 후 밑바닥을 다듬을 때 도자와 같은 예리한 도구로 정면하는 기법이다. 대개 저부의 접합부분이나 동체부의 두드러진 면에 사용된다. 삼국시대 蓋杯의 경우 도차에서 분리한 배를 뒤집어서 손에 들거나 도차위에

놓고 돌려서 저부를 깎는다. 그리고 5세기 중엽 이후 일본열도산 須惠器는 특히 도차위에서 회전을 이용해 깎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한반도산 토기와 일본열도산 토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회전물손질은 토기를 성형할 때 손의 열에 의해 토기가 마르면서 균열을 일으키므로 회전대나 도차에 성형된 토기를 올려, 회전시키면서 자주 물 묻은 손이나 천 혹은 가죽을 이용해 물손질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또 회전물손질은 토기의 기벽에 고운 점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가늘고 미세한 흔적을 남긴다.

목판긁기는 도차에 얹어서 목판을 대고 회전시켜 토기의 기면을 정면하는 기법이다. 목판의 요철로 인해 회전물손질보다 폭이 넓고 깊은 밀집 평행선이 돌아가는 것이 관찰되어 흔히 목리조정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목리는 목판의 흔적에 불과하므로 목판긁기가 타당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목판조정은 고배의 배신과 대각의 접합부, 蓋의 손잡이 접합부 주변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접합면을 보강하고 동시에 부착된 여분의 점토를 제거하며 그 주변을 정면하는데 사용된다.

4) 소성

소성은 토기를 가열하여 태토에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450도가 되면 점토는 가소성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실요를 사용하지 않은 노천소성에서는 600~800도 이상 올리기 어렵다.

가야토기는 실요에서 소성되며, 이는 가마 내의 온도를 소성에 필요한 만큼 높이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소성의 단계별로 그 내부를 환원 또는 산화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특히 가야토기는 1200도 이상의 고온을 얻기 위해 구릉에 경사를 가지며 축조된 등요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마의 입지는 그 바닥이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가야토기의 생산에는 원료로서 다량의 점토와 땔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가마의 위치는 점토와 연료의 입수가 용이하고, 바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이와 함께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기 좋은 곳을 고려한다.

가마는 구릉의 사면을 굴과 같이 판 지하식과 사면을 지표에서 파들어가 지상에 천정을 구축한 반지하식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축조는 구릉의 등고선에 직교 또는 斜交하는 구덩이를 판다. 다음 나무로 천정을 架構하기 위한 골조를 만들고 벽과 함께 짚을 넣은 점토를 바르며 흙으로 덮는다.

가마는 아궁이, 땔감을 지피는 연소부, 토기를 넣어서 소성하는 소성부, 화기와 연기를 배출하는 연도로 구성된다.

가야토기를 제작한 대표적인 요지는 고령군 내곡리, 창녕군 여초리, 함안군 우거리, 묘사리가마터를 들 수 있다. 4세기 창녕지역의 여초리B지구 가마터의 구조는 야산의 구릉사면을 옆으로 파 들어가 구축한 지하식이다. 가마가 산기슭의 구릉사면에 구축되어 소성실의 경사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가마의 바닥 전반이 평탄하고 중반부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반지하식과 같이 지상에 드러날 경우 결구가 어렵고 측벽상단의 외측이 곧바로 암반층과 연속되는 점 등을 들어 지하식으로 보고 있다. 형태는 세장하고 그 내부에 단벽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계단식이다. 여초리가마는 회구부에서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어 많은 횟수의 조업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호, 각종 단경호, 노형기대, 시루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대호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함안지역의 우거리가마는 반지하식이며 더욱이 장타원형인 점에서 여초리가마와 차이를 보이나, 내부 구조는 유사하다. 우거리가마에서는 대호, 각종 단경호, 노형기대, 시루 등과 같은 여러 기종이 고르게 출토되었다. 특히 영남지역 전역에 유통된 승석문호가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여초리가마와 우거리가마는 5세기 전반의 일본열도의 오사카후 陶邑유적

의 가마와 형태가 유사하여 토기 공인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축기술도 가야지역에서 일본열도에 전래된 것으로 본다.

경질토기의 소성은 1200도 이상의 가마 내에서 크게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토기의 단면을 보면 전면 회청색 또는 회색을 띤 것으로부터 속심은 암자색이고, 내외면은 회청색 또는 흑색을 띤 개체, 드물게는 내외면부터 속심까지 암자색을 띤 개체도 보인다. 단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색층 가운데 회청색 또는 흑색층(내외면층)은 환원염 소성에 의해서 토기 태토에 함유되어 있는 산화제이철(Fe2O3)이 환원되어 산화제일철(FeO)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반대로 암자색층(속심)은 산화염소성에 의해서 태토 내의 산화제일철이 산화되어 산화제이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는 먼저 窯內로 공기를 충분히 들여보내고 산화염소성으로 가마안의 온도를 올려서 제품을 거의 완성시킨다. 그 다음 가마 안으로의 공기 공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대량의 연료를 투입하여 환원상태를 만든다. 토기의 색이 결정되는 것은 소성 최종단계의 일시적인 환원처리에서이다. 따라서 경질토기의 단면색층에는 그 소성과정이 여실히 반영되며, 단면색층의 분석을 통하여 한 지역 토기군 내에서의 시기에 따른 소성기법의 변천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여러 지역 간의 소성기법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야토기는 12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는 등요에서 소성되는 까닭에 가마 내에서 토기끼리 서로 엉켜 붙거나 일그러지고 또는 가마바닥에 鎔着되기도 한다. 특히 대량생산을 위하여 重疊소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토기가 가마바닥에 용착되거나 토기끼리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와 재료가 사용된다.[5] 이때 토기와 가마바닥 사이에 넣는 별도의 물질을 離床材, 토기를 중첩 소성할 때 토기끼리의 용착을 막기 위한 별도의

5) 홍진근, 2003, 「삼국시대 도질토기의 소성흔 분석」, 『삼한·삼국시대의 토기생산기술』(제7회복천박물관국제학술대회), 부산, 복천박물관.

물질을 離器材라 한다.

이상재의 가장 큰 기능은 토기의 저부 혹은 대각이 가마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토기가 용착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가마 내의 열기가 토기 전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사진 등요의 구조를 감안하면 이상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마내의 안정적인 토기적재에도 사용되었다. 이상재는 원삼국시대의 밀폐요와 함께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 고온을 내는 등요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상재는 초본류, 토기편, 소할석 등이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체로 초본류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재가 닿은 부분의 기면에는 보통 紅斑 혹은 黑斑의 불완전 연소흔이 남아 있거나 이상재 자체가 붙어 있기도 하다. 이상재는 초본류, 모래, 소할석 등과 토기편, 점토, 원반형, 土餠형, 쐐기형, 발형, 고배대각형, 통형 등 토제품으로 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기재는 고배, 개배, 유개합 등의 소형토기와 호, 옹 등의 중형토기 위에 소형토기를 올려 중첩소성할 때 토기와 토기 사이에 사용되는 이상재와 같은 물질 또는 도구로서 주로 초본류와 함께 이용된다. 특히 고령지역에서는 초본류에 의한 십자상의 이기재 흔적이 개배에서 확인되어 이 지역산 토기의 식별에 유효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 이상재와 이기재의 부착 위치를 통하여 동시에 제작된 개체의 구별과 호류의 정치, 도치, 횡치소성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횡치소성된 호의 경우 요바닥에 닿은 동부에는 이상재의 흔적, 그 반대 방향의 동부에는 중첩소성을 위한 이기재의 흔적이 관찰된다. 횡치소성된 아라가야양식의 4세기대 호의 동부 측면에는 함몰부와 구연부의 왜곡이 관찰된다. 소성방법은 자연유가 부착된 부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 Ⅲ. 가야토기의 양식

## 1. 가야와 신라의 토기 양식

가야토기라 하면 신라토기와 떼어 놓고 생각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양자가 공통성이 강한 원삼국시대 와질토기에서 발전한 영남지방의 토기이며 같은 시기 다른 어떤 토기들보다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양자에 보이는 기종, 형태, 문양, 제작 기술 등의 차이도 크다. 먼저 각 기종별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개 : 고배, 장경호, 개배에 주로 사용되는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다.
  가야양식은 단추형의 손잡이가 붙으며 점열문이 주로 시문되고 곡선적이며 器高가 높지 않다.
  신라양식은 통형의 손잡이가 붙으며 거치문, 원문, 집선문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시문하며 직선적이고 기고가 가야양식에 비해 높다. 신라양식에는 토우가 부착되기도 한다.
- 고배 : 음식물을 따로 옮겨 담아서 사용하는 대각이 달린 접시와 같은 기종으로 무개식과 유개식이 있으며 신라토기는 5세기가 되면 무개식이 대부분 사라진다. 고배는 취락에서도 출토되는 것에서 보아 실생활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또 분묘에서 제기로도 사용된 가야, 신라토기를 대표하는 기종이다.
  가야양식은 곡선적인 八자형의 대각에 좁고 긴 상하일렬투창이 뚫려 있고 배신이 얕다.
  신라양식은 직선적인 梯形의 대각에 장방형의 투창이 상하교호로 뚫려 있으며 배신이 상대적으로 깊다.
- 개배 : 뚜껑 접시와 같은 기종이나 고배와 달리 대각이 없으며, 주로 백

제지역에 사용되고 가야·신라토기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가야양식은 배신이 얕고 뚜껑에는 유두형손잡이가 달린다.
신라양식은 배신이 상대적으로 깊고 뚜껑에는 주로 단추형손잡이가 달린다.

- 장경호 : 경부가 길며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항아리와 같은 기종이다.
  가야양식은 有蓋 無臺식이어서 따로 만들어진 기대에 얹어지며 경부는 3~4단의 돌대로 구분되어 파상문을 주로 시문한다. 경부가 곡선을 이루며 동부에 연결되고 어깨의 선이 뚜렷하지 않은 구형이다.
  신라양식은 무개 유대식이 주류이며 거치문, 원문, 집선문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시문한다. 경부가 직립하며 동부에 각을 이루어 연결되고 어깨가 각을 이룬다. 토우가 부착된 예가 있다.
- 통형기대 : 통형기대는 밑이 둥근 호를 받치는 용도로 제작된 기종이나 주로 상위신분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는 것으로 볼 때 실생활 용기보다는 매장의례의 장엄성을 높이는 제기라 할 수 있다.
  가야양식은 각종 문양과 세로띠, 투창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상위의 수부가 호형이며 대각이 장고형이다. 대가야양식의 통형기대는 뱀모양의 장식 세로띠를 부착하고 있다. 6세기대의 수부가 호형이고 대각이 극도로 커진 아라가야양식의 통형기대는 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출토품과 같은 백제양식 기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가야양식의 통형기대는 직선적이고 장식이 소박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신라기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라양식은 수부가 직선적으로 외반하고 대각은 직선적인 제형이며 가야양식의 통형기대에 비해 장식이 소략한 점이 특징이다.
- 발형기대 : 발형기대는 밑이 둥근 호를 받치는 용도로 제작된 기종이나

그 자체로도 용기의 역할을 겸한다. 이 기종은 통형기대와 같이 주로 상위신분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는 것으로 볼 때 매장의례의 장엄성을 높이는 제기로 주로 사용된 것이다.

가야양식은 수부가 얕고 곡선적이며 대각은 팔자형으로 파상문과 송엽문이 주로 시문된다. 아라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은 기대는 대각의 폭이 좁고 긴 것이 특징이다.

신라양식은 수부가 깊고 직선적이며 대각은 제형으로 파상문 이외에도 격자문, 집선문, 거치문, 원점문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것이 특징이며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형태를 띤다.

- 대부완 : 대각이 달린 깊은 바리와 같은 기종이다. 가야양식은 유개식이나 신라양식은 무개식이 특징이다.

가야의 토기양식은 3~4세기에는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양식, 5~6세기에는 아라가야양식, 소가야양식, 대가야양식으로 구분된다.

〈그림 2〉 4세기 가야의 토기 양식

〈그림 3〉 5세기 가야의 토기 양식

## 2. 금관가야토기 양식

금관가야양식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기종으로는 노형기대, 외절구연고배와 단경호를 들 수 있다.

외절구연고배는 배신 상부에서 한번 꺾여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 특징인데, 대각은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변화하며 투창이 없는 것에서 뚫린 것으로 변한다.

노형기대는 전대의 와질토기에서 유래한 기종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체부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잡이 단면은 원형에서 장방형으로 바뀌고 다시 세장방형으로 변화한다.

호는 격자타날문호가 주류를 이룬다.

일본열도의 土師器를 모방한 연질토기 역시 이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도 금관가야양식 토기의 특징이다.

## 3. 아라가야토기 양식

함안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로는 4세기대의 공자형고배, 노형기대, 양이부승석문호와 5세기대의 화염형투창고배, 발형기대, 양이부승석문호 등이 있다. 4세기대 아라가야양식의 통형 또는 공자형고배, 노형기대, 양이부승석문호는 남강수계, 황강수계, 낙동강 상·중류역의 교통로를 따라 가야토기 가운데 가장 넓은 분포권을 형성하였다.

승석문호는 양이를 가진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한다. 승석문호는 횡치 소성에 의한 동부 측면의 함몰부 흔적, 이기재와 이상재의 흔적과 구연부의 왜곡이 관찰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부호가 동부 하단에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공자형고배는 이전 시기의 목제 효를 모방·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통형의 대각이 끝 부분에서 넓게 벌어지고 배신은 매우 얕다. 대각에는 무늬가 없는 것도 있으나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쐐기형으로 문양을 찍거나 투공을 뚫어 장식한다.

화염형투창고배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대각에 화염형 투창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화염부가 횡타원형의 불꽃길이가 짧은 것에서 원형의 불꽃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변화한다.

노형기대는 김해지역과는 달리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개가 공반된 유개대부호에서 변화한 것으로 금관가야양식과는 달리 손잡이가 없고 배신에 비하여 대각이 길고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지며 신부가 얕은 것이 특징이다. 대각에는 삼각형이나 장방형의 투공을 뚫고 문양을 시문하기도 하였다.

발형기대는 대각이 넓고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에서 점차 대각 상부가 축약되고 벌어지는 폭도 좁아들어 대각이 원통형으로 변화한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늦은 시기까지 배신이 깊은 형태를 유지한다.

통형기대는 대각이 엎어놓은 바리 모양이고 수부는 깊은 접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기대에 비해 돌대가 강하게 돌출하며 몸통 부분에 사격자문이나 삼각거치문을 시문하기도 하였다.

## 4. 소가야토기 양식

삼각투창고배와 대각 하단에 돌대가 돌려진 일단장방형투창고배는 소가야양식 고배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삼각투창고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받이턱의 돌출도가 약해지고 투창수가 줄어들며 소성도가 약해진다. 일단장방형투창고배는 대각 하단에 돌려진 돌대의 돌출도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화한다.

수평구연호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구연부 형태가 일정한 면을 가지고 수평을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동부가 작아지며, 구연부가 외경하는 형태에서 수평화 또는 외절하는 형태로, 경부가 곡선에서 직선으로, 저부가 원저에서 평저로 변화한다.

광구장경호는 소가야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으로, 경부의 외반도가 심해지고 동체에 비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대부직구호는 아라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에 존재하는 기종이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구연부와 대각이 축소되는 변화를 보이지만, 전자는 말산리구34호분 출토품과 같이 상하일렬투창이며, 후자는 상하교호투창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발형기대는 배신과 대각의 접합부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며, 배신이 깊고 넓고 완만하게 외반하는 대각을 가진 것에서, 점차 배신이 직선적으로 외반하고 구연이 수평으로 꺾이며 대각 지름이 좁은 것으로 변화한다.

통형기대는 직선으로 꺾이는 대각과 오목한 접시 모양의 수부가 특징적이다. 외형적으로는 신라의 기대와도 비슷한 점이 있으나 투창과 수부 모양에서 차이가 난다. 수부에 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투창 모양이 삼각형인 것과 장방형인 것에 따라 세분된다. 대체적으로 몸통과 대각의 구분이 명확한 것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퇴화한다.

## 5. 대가야토기 양식

4세기대 고령지역의 노형기대는 저평형과 장각형이 있으며, 저평형은 대구·창녕 지역과 황강 중류역의 봉산지역에 분포하는 범 낙동강 유역 양식으로, 장각형은 아라가야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형기대는 다른 지역의 기대에 비해 일찍부터 정형화되었으며 수부는 목항아리 모양이고 대각은 엎어놓은 바리나 종 모양을 하고 있다. 측면에 붙은 뱀 모양 장식띠가 특징이며 대각 및 몸통의 투창 모양, 장식띠를 통해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대각은 완만한 바리 모양에서 종 모양으로 높아지고, 몸

통의 투창은 방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한다. 장식띠의 끝부분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면 형태가 능형에서 사각형으로, 단면은 삼각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발형기대는 배신이 깊은 것에서 얕고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변화하며, 구연은 노형기대의 흔적인 굴곡이 남아 있는 것에서 굴곡이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은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에서 곧게 뻗어 내리는 것으로 바뀐다. 발형기대는 아라가야와 소가야 양식에 비해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대각에는 아치형투창을 장식하다가 삼각형투창으로 바뀐다. 배신에는 송엽문을 주로 시문되다가 무문화 된다. 유문계는 각부에 비해 배신이 얕아지는 데 비해, 무문계는 대각에 비해 배신이 깊어지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고배는 4세기대에는 함안양식의 영향에 의한 통형고배가 제작되나, 5세기 전엽에는 아라가야와 소가야 양식에 비해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유개식고배가 등장한다. 개의 손잡이는 보주형, 단추형, 유두형이 있으며, 천정부는 불룩한 것에서 비스듬한 것을 거쳐 평평한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의 투창은 세장방형의 상하일렬투창에서 그 후 1단투창으로 바뀌고, 종말기에는 원형투공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각이 낮아지고 통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납작해진다. 뚜껑의 손잡이는 단추형과 유두형이 있다.

대가야양식 장경호는 밀집파상문을 경부에 시문한 유개식이 주류를 이루어 아라가야와 소가야 양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경호는 원저에서 평저로, 동체가 경부보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뚜경받이 턱은 돌출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파수부완은 대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있으나 형식변화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즉 완의 형태는 곡선적인 것에서 직선화되고, 장식된 파상문

은 파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보인다. 대각은 동체보다 점차 작아지고, 팔자형에서 사다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파수부옹은 파수 끝부분이 C자상으로 말린 것이 특징이다. 이 기종은 적색연질에서 회청색경질로, 파수의 끝부분이 C자상으로 말린 것에서 펴진 것으로, 동체가 길고 곡선적인 것에서 짧고 직선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 외 저평형 통형기대, 환형 파수부연질개, 유두형 손잡이 또는 보주형 손잡이가 달린 바닥이 넓고 납작한 개배도 대가야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 Ⅳ. 토기로 본 가야 세력의 변천과 대가야의 발전

### 1. 3~4세기 아라가야가야 양식 토기의 확산과 그 의미

아라가야의 경우 4세기의 대형 목곽묘가 발굴 조사되지 않아 가야전기 아라가야 세력의 활동과 그 위상을 알 수 없으나 토기양식의 분포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아라가야양식의 공자형고배, 통형고배, 노형기대, 양이부승석문호는 3세기부터 4세기 후반 남강과 황강수계, 낙동강상류역를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며 금강수계의 공주시 남산리고분군, 천안시 두정동, 청주시 봉명동 등의 백제지역과 고성군 송학동고분군, 여수시 고락산성, 여수시 장도, 순천시 횡전면 등의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된다.

특히 양이부승석문호는 다른 기종과는 달리 확실히 함안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인 점이 주목된다. 함안지역산 양이부승석문호는 기벽이 아주 얇고 고화도로 소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부의 함몰된 동부, 타원형의 구연부와 동부 측면의 중첩 소성흔으로 볼 때 횡치하여 소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 양이부승석문호는 이 시기 같은 시기의 창녕군 여초리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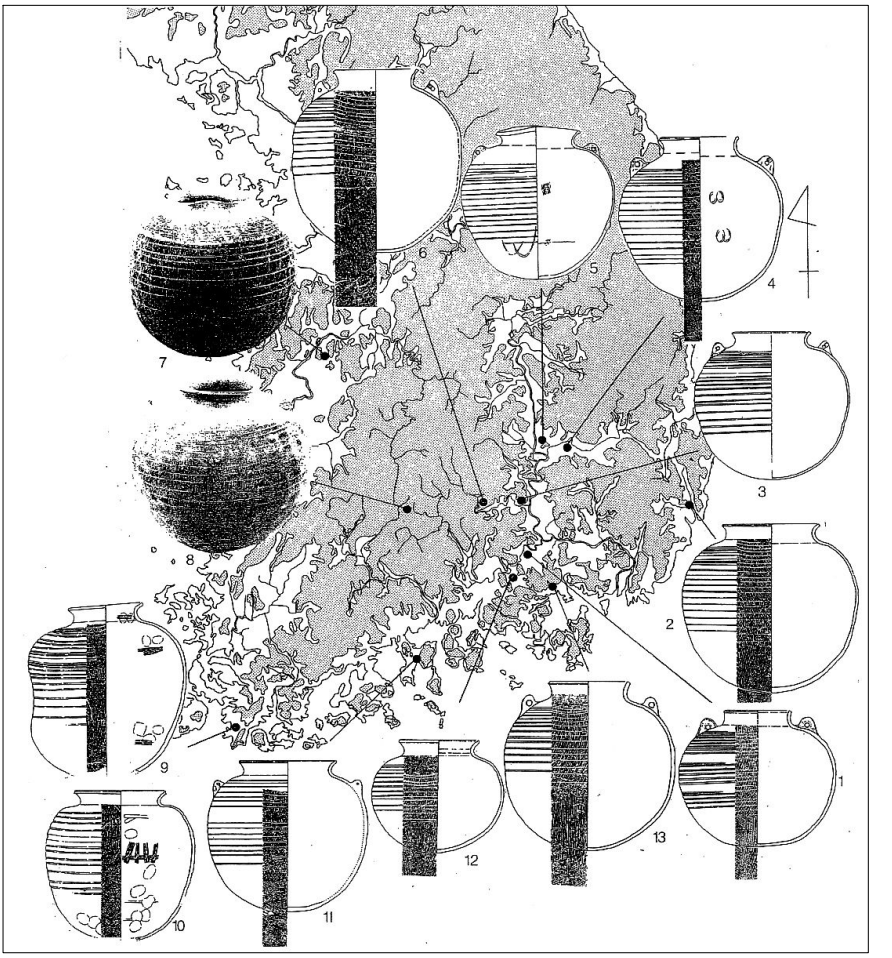
구시 신당동요, 경산시 옥산동요 등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陶符號가 시문된 경우가 많아 그 식별이 아주 용이하다.

도부호는 함안군 우거리요에서 집중 출토되었으며 공인이 제작한 토기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종류는 최소 8종 이상으로 보고 있다.[6] 그래서 이 시기 아라가야양식의 승석문호는 횡치 소성하는 것과 도부호를 새긴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승문타날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징과 함께 동상반부를 회전물손질로 지우는 것이 특징이다.

횡치소성흔과 도부호가 시문된 승석문호는 김해지역의 대성동13호분, 퇴래리7호분, 예안리92, 93, 118호분, 부산지역의 복천동54호분, 진주지역의 무촌리2구13호분, 2구39호분, 3구124호분, 합천지역의 옥전25호분, 저포리A지구8, 30, 31호분, 대구지역의 비산동1, 3호분, 문양리20, 30호분, 칠곡지역의 심천리50호분, 경주지역의 구정동3호에서 출토되었다. 그 외 도부호가 시문되지 않았으나 함안산으로 파악되는 승석문호는 김해시 대성동고분군, 합천군 옥전54호분, 경주시 구어리1호분, 여수시 고락산성 출토품 등이 있다. 이러한 승석문호가 함안산인 것은 이 지역에서 3세기 중엽에 출현하나, 주변지역에서는 함안지역보다 늦은 시기에 부장되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즉 김해지역에서는 3세기 후엽의 대성동59호분, 부산지역에서는 4세기 초의 복천동38호분, 울산지역에서는 3세기 후엽의 중산리75호분에서 부장되기 때문이다.

아라가야양식의 승석문호는 3세기 중엽 함안지역의 도항리(문)35호분에서 출현한다. 승석문호는 3세기 후엽에는 김해지역의 대성동59호분과 울산지역의 중산리75호분에서 확인되며, 이 시기는 아직 광역 분포권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3세기 말 승석문호는 김해시 구지로1호분, 칠곡군 심천리

6) 李政根, 2006,『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嶺南大學校大學院文學碩士學位論文, 慶山, 嶺南大學校大學院.



〈그림 4〉 함안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4세기)

1. 함안 도항리33호분 2. 부산 복천동54호분 3. 합천 옥전54호분 4. 대구 비산동2호분 5. 칠곡 심천리54호분 6. 합천 저포리A 지구31 호분 7. 공주 남산리고분군 8. 남원 아영출토품 9, 10. 해남 신금55호주거지 11. 여수 고락산성 3호주거지 12.진주 무촌리 3구 35호분 13.마산 대평리고분군

50호분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 경주시 구정동3호에서도 횡치소성흔이 보이는 함안산의 소문호가 부장되어 아라가야 세력이 김해지역과 울산지역을 거쳐 경주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

4세기 초 승석문호를 비롯한 함안산 토기가 금관가야의 대수장묘인 대성동13호분, 동래지역의 대수장묘인 복천동38호분, 다라의 대수장묘인 옥전54호분, 대구지역의 수장묘인 비산동(영)3호목곽묘에 부장된다. 더욱이 이 시기 함안산토기는 여수시 고락산성에서 확인된 고지성취락인 3호주거지, 해남군 신금55호주거지, 남원시 아영지역, 공주시 남산리고분군에서 출현한다. 이 시기는 3세기 말에 성립된 아라가야양식의 승석문호, 장각노형기대, 공자형고배가 영남 전역으로 이입되며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토기가 제작된다.

그런데 칠곡지역의 수장묘인 50호분에서는 도부호가 시문된 승석문호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개가 공반된 대부호를 포함한 부장토기 대부분이 함안지역에서 이입되어 주목된다. 또한 대구시 비산동고분군(영)3호목곽묘에서 부장토기의 대부분이 함안지역산이고 합천군 옥전고분군의 수장묘인 옥전54호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된다. 더욱이 가야지역뿐만 아니라 함안산토기는 경주시 구정동3호, 구어리1호분, 울산시 중산리75호분과 같은 신라지역의 수장묘에서도 부장되어 주목된다.

이와 같이 함안산 토기가 가야 신라지역의 수장묘와 낙동강수계, 남강수계, 황강수계와 남해안일대의 교통로에 연한 거점 취락에 주로 이입되는 것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경제적인 관계망뿐만 아니라 수장간의 정치적인 관계를 분명히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승석문양이부호를 비롯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長崎縣 大將軍山고분, 原の辻유적, 福岡縣 三雲유적, 東下田유적, 西新町유적, 鳥取縣 靑木稻場유적, 愛媛縣 猿ヶ谷2호분 분구, 船ヶ谷유적, 香川縣 宮山요, 京都府 市街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이는 금관가야양식 토기가 일본열도에서 주로 畿內와 東海지방에 주로 출토되는 것

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 시기 금관가야와 더불어 가야전기의 중심국인 아라가야도 일본열도와의 교류의 한 축을 형성한 것을 보여준다.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의 성립은 4~5세기 이 지역의 고분에서 철정과 이를 가공한 유자이기가 다수 출토되는 것에서 철생산과 지리적인 이점을 살린 그 유통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세기대의 왕묘인 대형 목곽묘의 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야국에서 아라가야로의 성장은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로 볼 때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망이 이와 같이 남강수계, 황강수계, 섬진강수계, 낙동강수계, 남해안일대에 형성되는 4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본다. 이는 5세기 전반 포상팔국의 중심세력인 고성 소가야 세력과 5세기 후반 가야의 중심국인 고령 대가야 세력조차도 이 시기에는 아라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금관가야 양식 토기는 노형기대, 고배는 옛 김해만 일대, 진영 일대, 낙동강 하류역의 동안, 온천천 주변의 동래지역, 진해 부근으로 국한되는 좁은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으로 유추되는 광역 관계망은 아라가야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전기에 양대 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가야뿐만 아니라 신라의 수장묘에 다수 부장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반도 남부에 형성된 아라가야의 독자적인 광역 관계망과 일본열도 각지에 출토되는 아라가야양식 토기로 볼 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일본열도와의 교섭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관가야 중심의 연맹체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아라가야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변한12국 가운데 安邪國으로 나오며, 안야국은 이미 이 시기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진왕으로부터 優號를 받는 유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안양식 토기의 확산은 종래 고고자료에 의존한 일방적인 금관가야 우위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헌사료에서 유추되는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광역 관계

망의 성립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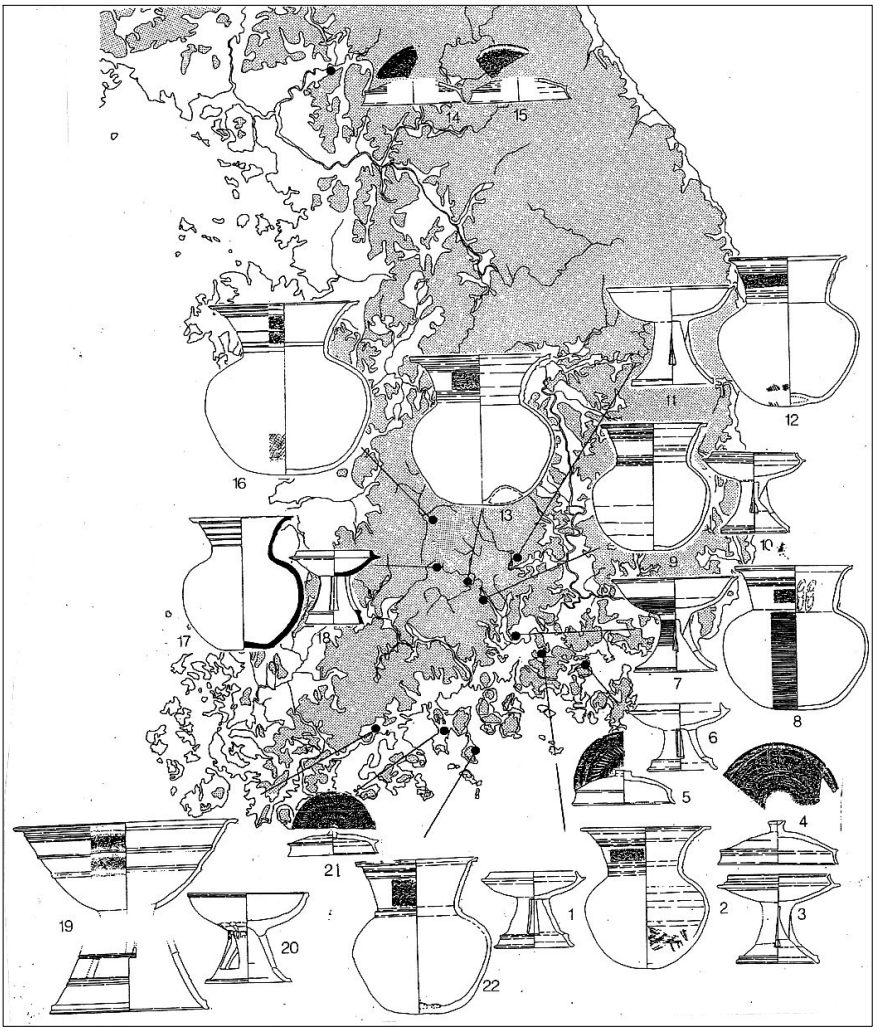
5세기 초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남강하류역을 제외하고 낙동강상류역, 남강상류역, 황강수계, 남해안에 반출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이 쇠퇴하는 것은 5세기 초『광개토왕비』경자년조의 고구려 남정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 2.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그 의미

소가야권역은 5세기대 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기대의 분포로 볼 때 해상교통의 요지인 고성반도를 중심으로 남해에 면한 사천지역과, 산청, 진주를 비롯한 남강 중류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가 남강상·중류역과 황강상·중류역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소가야가 북서쪽의 남강지류에 연한 곡간 통로를 통해 내륙지역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세기 동외동유적과 송학동1호분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가 함안양식의 장각 노형기대, 통형고배, 승석문양이부호인 점에서, 이 시기 고성세력이 아라가야의 관계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세기 소가야양식 토기의 중심 분포권에 속하는 진주시 무촌리고분군에서도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형식변화를 같이하면서 4세기에 부장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5세기 전엽 소가야양식 토기가 아라가야양식을 교체하듯이 산청군 중촌리고분군·묵곡리고분군, 남원시 월산리고분군, 거창군 말흘리고분군, 합천군 봉계리고분군·저포리 A지구고분군, 함양군 손곡리고분군 광양시 칠성리유적, 여수시 화장동나2호주거지, 죽포리고분군, 보성군 조성리유적 등 남강중상류역, 황강중상류역과 남해안에 걸쳐서 유통되고, 또 금강수계의 백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와 남해안에 출현한다.



〈그림 5〉 고성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5세기 중엽 전후)

1~4. 고성 연당리 18호분 5, 6. 고성 내산리 8호분 6곽 7, 8. 진주 우수리 1호분 9, 10. 산청 묵곡리고분군 11, 12. 합천 저포리 A지구 1호분 13. 함양 손곡리 2호분 14, 15.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16. 장수 삼고리 13호분 17. 남원 월산리 M1호분 ①호묘 18. 남원 월산리 M1호분 ⑧호묘 19, 20. 보성 조성리구상유구 21. 여수 화장동나2호주거지 22. 여수 죽포리고분군

그런데 조영제는 삼각투창고배에 대해 소가야와 관계가 없으며 산청군 중촌리고분군과 관련된 토기이며, 이는 소가야가 아니라 중촌리고분군을 조영한 모 가야소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토기로 보았다.[7] 그러나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고성지역이며, 삼각투창고배도 그 분포의 중심은 역시 고성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고성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나, 인접한 통영시 남평리고분군에서 개의 형식으로 볼 때 5세기 초에 조영된 1호분에서 유개식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같은 시기의 3호분에서는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13호분에서도 무개식 삼각투창고배가 부장되어 주목된다.[8] 왜냐하면 이 지역이 고성에 인접한 남해안에 위치하고 그 묘제가 선분구축조형에 다곽식인 고성지역의 소가야식 고분인 것에서 이러한 토기가 내륙의 산청군 중촌리 일대로부터 이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각투창고배도 다른 소가야양식 토기와 같이 고성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세기 전반 이와 같은 토기가 남해안에 연하여 전남지역까지 분포하는 것에서 소가야양식 토기의 분포 중심은 역시 고성지역으로 본다. 이는 차후 4세기대 고성지역의 목곽묘의 조사에 의해 판명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5세기 초 함양군 손곡리4호분에서는 우수리18호분 출토품과 병행하는 고식의 수평구연호가 부장되고, 남원시 아영지역의 청계리고분군에는 그 형식이 진주시 우수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하여 소가야계 토기로 파악되는 장각발형기대가 확인되어, 이 시기 이미 소가야 세력이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상류역에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본다. 이는 역시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와 같이 선진문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제지역으로의 교통로를 장악하

7) 趙榮濟, 2006,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硏究』, pp.155~156(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8) 동서문화재연구원, 2007,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김해, (재)동서문화재연구원.

기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5세기 전반 여수시 돌산도 죽포리고분군에서 수평구연호, 여수시 화장동 나1호주거지에서 삼각투창고배, 보성군 조성리유적의 구상유구에서 수평구연호와 삼각투창고배, 장흥군 지천리나13호주거지에서 삼각투창고배가 확인된다. 이 시기 소가야양식 토기가 특히 여수, 보성, 장흥지역의 거점 취락에서 집중 출토되는 것은 소가야 세력이 해상활동을 통하여 남해안일대의 제 세력과 관계망을 형성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福岡縣 朝倉窯산의 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호가 소가야양식이며, 長崎縣 惠比須山2호분, コフノサエ유적, トウトゴ山유적, 箕島고분군, 大分縣 船岡山유적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출토된다.

광양시 칠성리유적, 광주시 동림동유적, 서울시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칠성리유적과 동림동유적과 풍납토성에 인접한 몽촌토성에서 일본열도산 스에키가 출토되어 이 시기 소가야 세력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기반으로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즉 소가야 세력은 남강 중류역의 산청군 옥산리·묵곡리유적 출토 백제문물과 서울시 풍납토성의 소가야양식 토기 및 몽촌토성의 스에키로 볼 때, 함안세력을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금강수계를 통해 백제지역과 교섭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를 중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소가야의 성장은 고구려 남정 이후 대왜 교섭의 중심이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남해안일대와 내륙지역에서의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한 관계망의 해체를 배경으로 한다.

소가야권역은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국연합이나, 고성지역에도 송학동고분군에 필적하는 내산리고분군이 존재하고, 산청군 중촌리고분군에도 대형분이 조영된 점에서 연맹국 간에는 대가야권, 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

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포상팔국의 위치는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하는 고성읍, 사물국으로 비정되는 사천지역, 내산리고분군이 조영된 동해면 일대, 구영리고분군과 장목고분이 조영된 거제도일대 등을 그 후보지로 본다.

5세기 중엽 남강상류역의 남원지역과 황강중류역의 봉산지역에 소가야양식 토기가 유존하는 가운데, 대가야 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는 이전 시기 소가야 세력과 연계되었던 남강·황강수계의 기존 관계망에 대가야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후 5세기 후엽에는 종래 소가야와 연계되었던 황강 상·중류역, 남강상류역과 남해안일대의 관계망이 와해되고 대가야에 의해 새로운 관계망이 구축됨과 동시에 이 지역들이 그 권역에 편입된다. 그 후 6세기 전엽에는 소가야 권역 내의 수장묘역인 고성군 송학동고분군, 율대리고분군, 산청군 중촌리고분군, 진주시 옥봉·수정봉고분군에서는 대가야산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마구, 토기가 부장되고, 대가야양식 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일본열도로 반입된다. 이는 『일본서기』의 이른바 임나사현, 기문, 대사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외 교통로인 섬진강로가 백제에 의해 차단된 이후의 대가야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송학동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수장분이 조영되지 않는 것에서 소가야는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종언을 맞이한다.

### 3.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그 배경

5세기 중엽 고령 대가야양식 토기를 비롯한 묘제, 매장의례, 장신구, 무기, 무구, 마구, 농공구가 경남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동부지역에까지 확산한다. 대가야 진출 이전 5세기 전엽에는 황강과 남강수계에 연하여 고성 소가야양식 토기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소가야와 연계된 관계망이 남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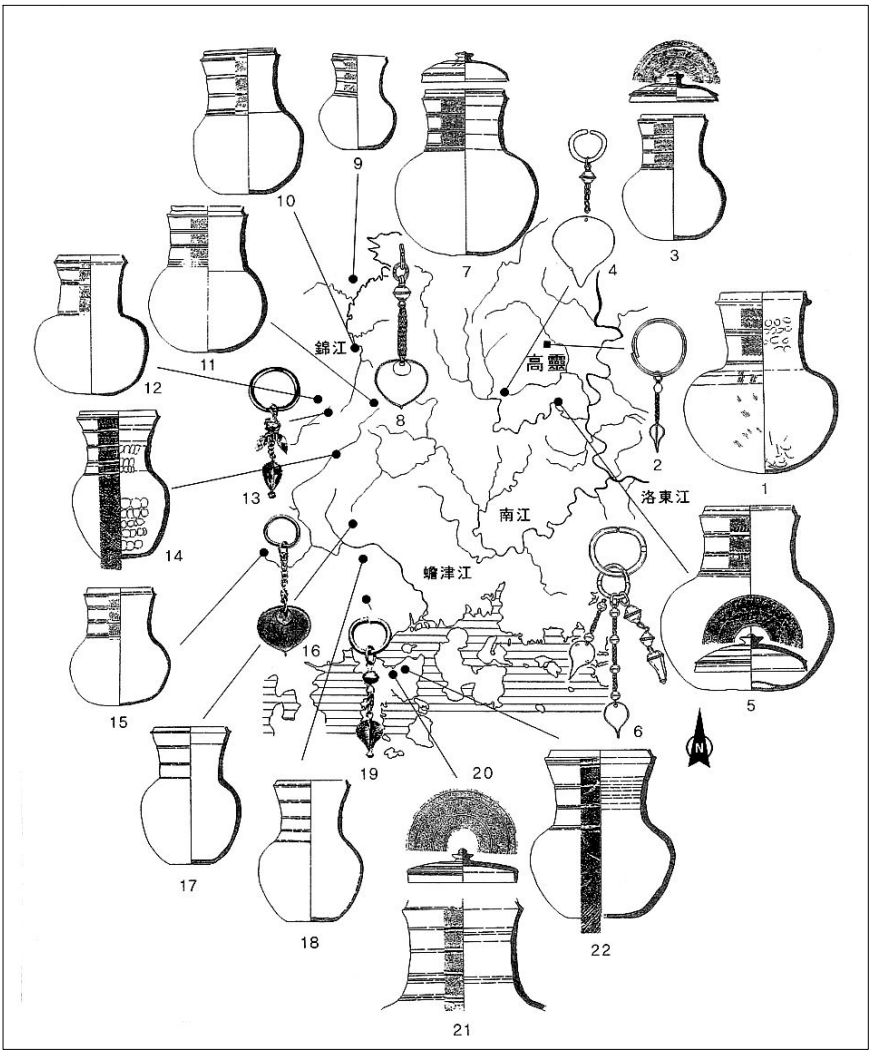
황강의 상·중류역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시기 황강수계에서는 하류역의 옥전고분군에서 대가야양식 고배형기대와 장경호가 확인되며, 중류역의 봉산지역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유존하는 가운데 봉계리고분군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봉산지역에서는 고총인 반계제나A호분이 출현하며, 나A호분과 하위분묘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남강유역의 남원 아영지역에서는 수장묘로서 고총인 월산리M1-A호분이 출현한다. M1-A호분에서는 소가야양식 고배형기대가 유존하는 가운데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고배형기대를 포함한 대가야양식 토기와 이를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한 토기가 부장된다. 그래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다수파로 되고, 소가야양식 토기가 소수파로 전락한다. M1-A호분에서는 내만타원형경판비를 비롯한 대가야산 마구와 종장판주를 비롯한 대가야산 갑주가 부장되었다. 또 이 시기 아영지역에서는 꺽쇠와 관정으로 결합한 목관을 안치한 세장방형 석곽과 같은 대가야형 묘제가 도입되는 것도 주목된다.

5세기 후엽 황강수계에서는 하류역의 옥전M3호분과 70호묘에서, 중류역의 반계제고분군과 중반계고분군에서 확인되듯이 수장묘뿐만 아니라 일반 성원묘까지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일색으로 부장된다. 또 반계제고분군에서는 통형기대와 爐, 옹, 시루가 공반되고 있어 고령지역과 동일한 묘전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계제고분군에서는 대가야산의 금동제 관모부주, 금제 수식부이식와 은장 오각형환두대도, 내만타원형경판轡 등이 출토되었다.

남강상류역에 위치하는 함양군 백천리1호분에서도 대가야양식 토기가 일색으로 부장되고 있고, 묘사유구에서 노와 함께 옹, 시루가 공반하는 것에서 볼 때 대가야와 같은 묘전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백천리1호분에서는 대가야산의 금제 수식부이식과 은장 오각형환두대도, 내만타원형경판비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6〉 토기와 장신구로 본 대가야권역(5세기 후엽 전후)

1, 2. 고령 지산동(영)40 호분 3, 4. 합천 반계제가A 호분 5. 합천 옥전M3 호분 6. 합천 옥전28호분 7, 8. 함양 백천리1 호분 9. 진안 황산리고분군 10. 장수 삼고리5 호분 11. 남원 두락리1호분 12. 임실 금성리1호분 13. 장수 봉서리고분군 14. 남원 호경리고분군 15, 16. 곡성 방송리고분군 17. 구례 용두리고분군 18. 순천 회룡리고분군 19. 순천 운평리M2 호분 20, 21. 여수 고락산성 22. 여수 미평동고분군

이 시기 남강상류역의 임천강수계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유존하나 같은 상류역인 위천수계와 황강수계에서는 대가야양식 일색이 된다. 또 황강중류역과 남강상류역의 위천 수계에서는 묘제와 묘전제사까지 대가야와 일치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5세기 말에는 섬진강수계와 금강수계를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점인 남강수계의 남원 아영지역에서 수장묘역인 월산리고분군의 조영이 정지되고, 새로이 두락리에 고총이 조영된다. 이는 대가야가 종래 소가야의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었던 월산리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이 두락리세력을 후원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시기는 대가야가 479년 남제에 견사한 직후인 점에서 내외적으로 획기적인 발전기로 평가된다.

순천시 운평리고분군에서는 이 시기의 대가야양식의 토기, 금제수식부이식과 묘제가 확인된다. 운평리고분군은 직경 10~20m의 분구를 가진 수기의 고총과 다수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로 구성된 고분군이다.

M1호분은 영산강유역과 인접한 소가야권역의 선분구축조형이 아닌 세장방형석곽의 대가야식 수혈식석곽을 축조한 후 봉토를 조영하는 방식인 점에서 대가야와의 관련이 상정된다.

M2호분에서는 고령지역산 대형 통형기대가 봉토상에서 출토되어 고령지역과 동일한 묘전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고령지역산 통형기대는 고령군 지산동30호분, 32호분, 44호분, 합천군 옥전M4호분, 반계제다A, 가B호분, 남원시 두락리1호분, 의령군 경산리1호분 등에서 출토된 대가야권역 수장묘의 제사에 사용되는 특수한 祭器이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고령지역산 금제수식부이식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고분 출토 이식은 종래 출토된 장수군 봉서리고분군 출토품과 곡성군 방송리고분군 출토품이 대가야산인 점과 대가야산 위신재가 섬진강수계를 따라 남해안 일대까지 이입된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가야양식 토기는 순천시 운평리고분군의 북쪽 구

례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상에 위치한 순천시 죽내리고분군과 회룡리고분군에서도 확인되고, 남쪽에 위치하는 여수시 고락산성에서도 다수 출토되었다.

〈그림 7〉 대가야권역 출토 고령 지역산 통형 기대

5세기 후반 전성기의 대가야권역은 토기양식과 금제 수식부이식과 같은 위신재의 분포로 볼 때 고령을 중심으로 황강수계의 합천, 거창, 남강수계의 함양, 산청, 운봉, 아영, 섬진강수계의 남원, 임실, 곡성, 하동, 광양, 남해안의 여수, 순천, 금강수계의 장수, 진안에 걸친 지역이다. 그 북쪽은 대가천상류역의 성주지역에서 신라, 금강상류역의 진안지역에서 백제와 국경을 형성한다. 동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을 형성한다. 남쪽으로는 남강중류역의 생초지역에서 소가야, 남강하류역의 의령지역에서 아라가야와 경계를 형성한다. 서쪽으로는 섬진강수계의 임실, 순창, 구례, 순천지역에서 백제와 국경을 형성한다. 근래 고흥지역에서 백제에 의해 이식된 왜인이 조영한 안동고분이 확인되어 5세기 후반 대가야권역의 서쪽 국경이 고흥반도의 이동인 것이 확인되었다.

5세기 후반 고령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가야권은 황강수계, 남강수계, 소백산맥, 섬진강수계를 넘어서 고령에서부터 남해안일대에 걸치는 가야사상의 최대 판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당시 금강수계와 영산강수계를 포함하는 백제의 영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대가야의 발전은 주로 고령과 안림천수계로 연결된 야로지역의 철산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필자는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이입된 대부분의 문물이 대가야산인 점과 백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섬진강하구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위치하는 소위 임나사현을 공략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대가야가 남강상류역으로 진출한 후 남원분지로 남하하여 구례를 거쳐 섬진강하구의 교역항인 하동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던 남해안의 여수, 순천, 광양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본다.[9]

9) 박천수,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고령, 대가야박물관.

순천, 광양, 여수지역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소위 임나사현으로 비정된다.[10] 임나사현은 종래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왔으나 실제로는 대가야권역으로 파악되며 이는 임나사현의 哆唎와 己汶이 대가야의 권역을 나타내는 우륵12곡의 達已와 上奇物, 下奇物로 각각 비정되는 점에서 그러하다.[11]

섬진강하구 서안의 순천시 운평리고분군과 여수시 고락산성 출토 대가야양식 토기는 백제진출 이전 섬진강 양안이 대가야권역이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가야는 전성기에 소백산맥을 넘어 금강 상류지역과 노령산맥 이남의 섬진강유역 및 광양만, 순천만 일대의 호남동부지역을 영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해안의 제해권을 확보함으로써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내륙회랑인 남강로뿐만 아니라 양 세력이 활동하던 남해안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4세기까지 이입되던 금관가야산 문물과 5세기 전반에 이입되던 신라산 문물 대신에 대가야산 문물이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유입되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로서 대가야는 종래의 금관가야와 신라를 대신하여 일본열도와의 교역과 교섭을 주도하며 대외관계에서도 가야의 맹주로서 군림하게 된다. 즉 대가야는 북쪽 금강로, 서쪽 영산강로와 남쪽 남해안의 해상교통을 장악함으로써 대 일본열도 교역에서 금관가야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선 것이다.

종래 대가야의 발전시기에 대해 문헌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에서도 479

10)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記念 한국사학논총』, 서울, 정음문화사, 146쪽.
11)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3, 서울 : 푸른역사, 262~263쪽.

년 南齊 遣使기록에 의거하여 5세기 후엽으로 보았으나, 그 시기는 대가야문물이 남강상류역에 출현하고,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과 대가야권역에 일본열도산 문물이 이입되는 5세기 중엽으로 본다. 당시 적대국인 신라가 낙동강 하구를 장악하고 경쟁상대인 소가야가 사천만과 고성만에 포진하고 있어, 대가야는 반드시 섬진강로를 확보하여야만 비로소 양자간 교통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대가야는 임나사현를 확보하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백제와 왜의 교통뿐만 아니라 왜의 중국 교통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5세기 후반 일본열도에 이전 시기 이입되던 화려한 신라산 문물을 대신하여 금제 장신구와 금동제 마구, 토기를 비롯한 대가야산 문물이 집중 유입되고, 백제산 문물이 이입되지 않는 것은 이를 웅변하는 것이다. 479년 대가야에 의한 남제로의 독자적인 견사도 이와 같은 남해안의 해상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451년 대가야인 가라가 『송서』 왜국전에 돌연 등장하는 시점과 부합한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일본열도의 대가야 문물은 섬진강수계의 호남 동부지역이 대가야권역에 포함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6세기 초 남원시 두락리1호분에는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대가야양식 고배형기대·통형기대가 이입된다. 두락리1호분의 묘사유구에서 爐와 옹이 확인되어 대가야형과 같은 묘전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더욱이 대가야양식 토기는 남강중상류역의 경호강수계에 분포하는 산청군 생초고분군과 그 직하의 평촌리고분군, 주변의 옥산리고분군, 묵곡리고분군에서 확인되듯이 수장묘와 하위분묘에서 출토된다. 생초M13호분에서는 다수의 대가야양식 발형기대, 대가야산 금동제 용문환두대도, 검릉형행엽을 비롯한 마구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생초고분군은 대가야형의 주·부곽식의 석곽축조 후 봉토를 조영하는 방식인 점에서 소가야권역의 선분구축조형과 구분되어 남강수계에서는 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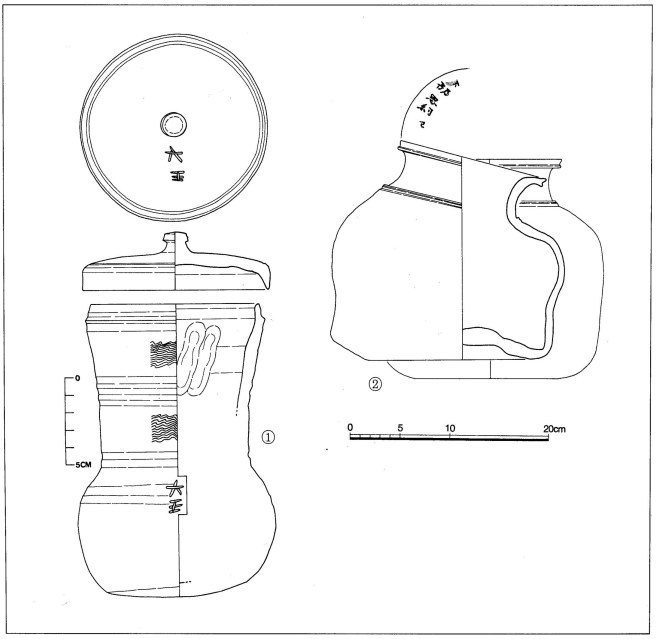
지역까지를 대가야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남강중류역의 산청군 중촌리고분군, 합천군 삼가고분군과 진주시 수정봉·옥봉 고분군에서는 수장묘에 대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지만, 중촌리고분군 직하의 명동고분군, 삼가고분군 직하의 의령군 천곡리고분군, 수정봉·옥봉고분군 직하의 가좌동고분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되어 대가야권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정봉·옥봉고분군과 중촌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은 대가야형의 고아동식과 다른 재지형이다. 이와 같이 토기양식뿐만 아니라 횡혈식석실도 고아동식 석실이 채용된 대가야권역의 합천 봉산지역과 남원 아영지역과 다른 점에서 이 지역은 소가야권역으로 설정된다. 이는 대가야가 남강상류역에 진출한 후 남하하여 새로이 남강중류역의 수장과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이 대가야권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세기 중엽 함안군 도항리4호분에서 대가야양식 통형기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남강하류역까지 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고성군 송학동1호분, 율대리고분군, 창원시 다호리고분군, 반계동고분군 등에서도 대가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특히 소형 석곽묘로 구성된 반계동고분군에서는 대가야양식 토기 일색으로 부장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대가야산의 위신재인 금제수식부이식과 금·은장 마구인 f자형경판비, 내만타원형경판비, 검릉형행엽, 금동장주胄는 5세기 후반에는 황강수계와 남강상류역, 금강상류역, 섬진강수계에 분포하다가, 6세기 전반에는 소가야권역의 진주, 고성 그리고 금관가야권역의 창원 진영분지로 확산된다.

이와 같은 대가야산 위신재의 분포와 대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가 궤를 같이하는 점에서 양자는 대가야에 의한 권역의 확대와 영향력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림 8〉 大王명 장경호와 합천군 저포리 E지구 4호분 출토 下部명 단경호

6세기 중엽에는 대가야양식 大王명 장경호와 함께 합천군 저포리E지구4호분 출토 下部명 단경호가 제작되어 주목된다. 이 하부명 토기의 명문에 대해 이 토기가 봉토바닥에 깨진 상태로 매납된 것에서 대가야 멸망 직전 저포리지역에 밀려왔던 백제 계통의 문물이나 인물에 대한 반감으로 보고 이를 백제의 부로 보는 견해[12]가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이 명문토기는 경부에 돌대가 형성된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이고, 또한 대가야의 경우 매장의례에 사용한 토기를 파쇄하기 때문에 대가야와 직접 관련된 토기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강중류역의 재지 수장세력의 단절과 같은 시기인 점, 대왕명 토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점,

12)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 서울 : 푸른역사, 46쪽.

그리고 지산동고분군의 왕묘 축조 양태에서 왕권이 확립된 시기인 것에 주목하여 대가야의 부로 판단된다.

6세기 전엽 대가야는 황강중류역 일대를 하부로 편제하고 대왕을 칭하며 종래 아라가야권, 소가야권, 금관가야권으로 나뉘어져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왔던 가야의 제 세력에 대한 구심체로서 결집을 시도였으나, 그러나 대가야는 6세기 전엽 백제가 섬진강하구를 점령하게 되면서 남해안의 제해권과 교역항을 상실한다. 이후 대가야와 일본의 교역도 퇴조하는 바, 이는 대가야의 쇠퇴 및 멸망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신라가 낙동강을 넘어 가야지역에 진출하고, 금강 상류역과 섬진강수계에 백제세력이 압박해 들어오는 가운데 562년 대가야는 신라에 멸망한다.

그런데 대가야멸망 이후의 정황을 나타내는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즉 대가야권에서 수백km 떨어진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고분군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신라후기양식 토기와 함께 수기의 고분에서 출토하기 때문이다. 추암동고분군에서는 가지구 가운데 34, 38, 40, 42, 43, 44호분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6세기 후엽의 신라후기양식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러한 고분의 피장자는 대가야멸망 이후 대가야권에서 徙民된 사람들로 파악된다. 이것은 562년 이후 구 대가야권에 대한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Ⅴ. 맺음말

3~4세기 뚜렷한 토기의 양식적 특징과 분포권을 형성한 정치체가 금관가야와 아라가야라인 것은 양자가 가야 전기의 중심국임을 나타낸다. 그 가운데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광역 분포권으로 유추되는 광역 관계망은 아라가

야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전기에 양대 세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종래 고고자료에 의존한 일방적인 금관가야 우위론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헌사료에 부각된 함안 세력의 실체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세기 초 금관가야 양식 토기가 소멸되고 아라가야 양식의 분포권이 축소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관가야의 쇠락과 아라가야의 일시적인 쇠퇴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는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를 교체하듯 남해안과 황강유역, 남강 중·상류역까지 분포권이 확대된다. 이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서 소가야가 짧은 기간이지만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대두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세기 후반 이전 시기 독자적인 토기양식이 미미하였던 대가야 양식 토기는 황강 유역의 합천, 거창, 남강 중·상류역의 함양, 남원, 금강상류역의 장수, 진안, 섬진강 수계의 임실, 곡성, 구례, 남해안의 여수, 순천, 광양, 일본열도에 분포하게 된다. 이는 아라가야와 소가야가 활동하였던 황강, 남강 중·상류역과 섬진강 수계의 관계망을 대가야가 장악함으로써, 이전 시기에는 내륙의 소국에 불과했던 대가야가 가야 후기의 중심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웅변하는 것이 대가야양식의 대왕명 장경호와 하부명 토기이다.

6세기 후반 신라후기 양식 토기가 가야지역에 급격하게 출현하며 이는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신라가 가야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郭鍾喆, 「韓國慶尙道地域出土の陶質大形甕の成形をめぐって－底部丸底化工程を中心として－」,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東アジアの考古と歷史』上, 京都, 同朋舍出版, 1987.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2, 서울 : 푸른역사, 2002.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3, 서울 : 푸른역사, 2002.

동서문화재연구원,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김해, (재)동서문화재연구원, 2007.

박천수,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고령, 대가야박물관, 2006.

申敬澈, 「金海 禮安里160號墳에 대하여」, 『伽耶考古學論叢』 1,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92.

이성주, 「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 『한국고고학보』 42, 한국고고학회, 2000.

李政根,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嶺南大學校大學院文學碩士學位論文), 慶山, 嶺南大學校大學院, 2006.

全榮來,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記念 한국사학논총』, 서울, 정음문화사, 1985.

趙榮濟,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硏究』(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2006.

崔鍾圭, 「陶質土器의 起源」, 『考古學誌』 6, 서울,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4.

홍진근, 「삼국시대 도질토기의 소성흔 분석」, 『삼한·삼국시대의 토기생산기술』(제7회 복천박물관국제학술대회), 부산, 복천박물관, 2003.

Abstract

## A Study on Dae Gaya through Pottery

Park, Cheun-Soo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s to the Gaya powers by the periods and the growth of Dae Gaya through Gaya pottery.

In the 3rd and 4th century, Geumgwan Gaya and Ara Gaya demonstrated clear style characteristics in pottery and formed their ranges of distribu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two Gayas were the core powers in the former half of Gaya. The network of the Ara Gaya-style pottery across vast regions particularly suggests that Ara Gaya was part of the two major powers in the former half of Gaya along with Geumgwan Gaya.

In the early 5th century, the Geumgwan Gaya-style pottery disappeared, and the distribution range of the Ara Gaya-style pottery became smaller, which reflects the temporary recline of the two Gayas.

In the former half of the 5th century, the So Gaya-style pottery spread to the southeast coast, River Hwang, and the upper and midstream of River Nam as if it were replacing the Ara Gaya-style pottery. The changes clearly indicate that So Gaya temporarily became the core power of Gaya in southern river areas and southern coast instead of Ara Gaya.

In the latter half of the 5th century, the Dae Gaya-style pottery was found around River Hwang, upper and midstream of River Nam, upper stream of River Geum, River Seomjin, southeast coast, and Japan, which reflects that Goryeong conquered the network in which Ara and So Gaya were active and that Dae Gaya, which used to be a small inland country until the 4th century, grew to be the central power of Gaya in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6th century, the Shilla-style pottery made its full-scale appearance across the Gaya regions, which suggests that the Gaya regions were dominated by Shilla after the fall of Dae

Gaya in 562.

Key Word

pottery style, Geumgwan Gaya, Ara Gaya, So Gaya, Dae Gaya

▪ 논문투고일 : 2009.12.9. 심사시작일 : 2009.12.10. 심사완료일 : 2009.12.18.